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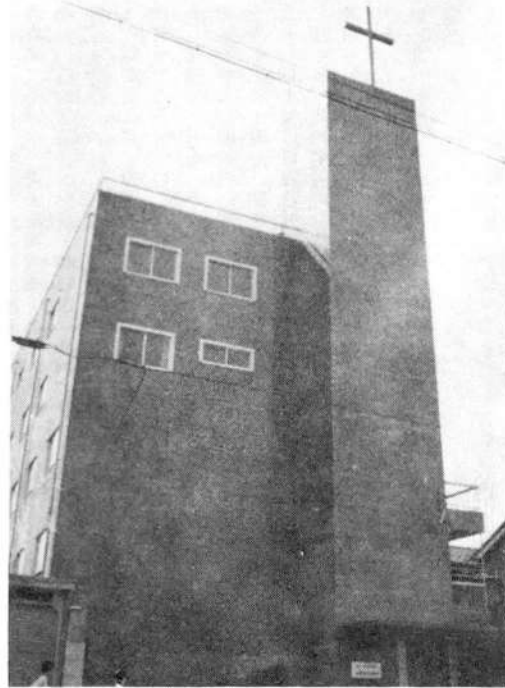
1. 敎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第29回總會 開催

10.9~11 大阪西成敎會会

李仁夏總務辭任 14년근속하고 交替

在日大韓基督敎第29回總會
10월 9일부터 11일
大阪西成敎會에서 열
린다.
今年度總代는 91名 中
(준3명 青年代表3名) 議決權
女伝道會代表3명) 議決權
을 가진 正代表는 82名
이다.



총회가 개최되는 大阪西成敎會

총회前後任職員會

既報한대로 이번총회는
總會長을 비롯한 任職員
選舉, 總務交替, 宣敎基本
政策案審議, 74年5月宣敎
戰略會議問題, 其他各地方
會의 獻議案討論가 있
다.
이런總會에서 에
수교長老會에서 과견되어
現在西宮敎會에서 시무하
고있는 李炳球牧師가 正
式으로 本總회에 가입하
게 된다.
또한 총회가 끝난 11
일 저녁부터 12일 오전까
지 총회후의 첫 임직원
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
기엔 총회서선 출된 서
임원으로 말미암아 새임
금들의 등장이 있을것으
로는 예상된다.

韓・日敎會共同기도성취

朴牧師保釈에 總務談話

本總會李仁夏總務는 朴
炯圭牧師保釈의 喜報에 접
하여 다음과같이 말하면
서 이일에 특별한 관심
과 物心兩面으로 朴牧師
事件에 支援를 보낸 총
회산하 各敎會와 WCC
言渡받은 朴炯圭牧師와 연
계한다.
日本NCC 및 敎導指導者
들과 敎友들에게 감사
를 표했다.
國家內亂子備陰謀事件으
로 지난 9월27일 서울
地方法院에서 懲役二年을
하었다.

論壇

第29回總會에 즈음하여

楊炯春

同胞의 수난에 同參한 우리 敎會

本紙9月号에 報道된바
있듯이 오는10월9일부터
사흘간 大阪西成敎會에서
在日大韓基督敎第29回總會
가 열리게 된다. 일찍총
회의 回数로서 생각할때
在日敎會가 고작하여 30
년의 歷史를 가졌구나생
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어
디까지나 解放後 在日本
朝鮮基督敎聯合會의 組織
으로 그때까지 韓人敎會
가 소속하고있던 日本基
督敎團에서 우리가 獨立
하여 나온以後의 총회回
數를 말하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宣敎한 宣敎의
하는것은 아니다.
우리가 宣敎한 宣敎의
하는것은 아니다.

團結은 第一回總會 以來의 傳統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의 意味
가 바로 이同胞과 이敎
會에서 처럼저리하게 느
끼지는 狀況도 드물것으
로 안다.
오늘의 우리敎會의 數
의問題가 内外의 數로
나 前記한바처럼 이敎會
의 歷史가 受難에서 시
작되고 고난의 길을 걸
어왔고 또한未來像을 그
려놓고 있다. 이苦難의 希
望"밖에 슬직하게 展望
할것 없을까, 이苦難의 隊
列에 參하는 民衆이 적
은것을 決코 나뉘지않
을줄 안다. 오히려 이問
題는 이敎會에서 우리들
이 어떤 覺悟로 이民衆
을 이끌며 引導하는냐가
問題인줄 안다.
그리하여 여기서 한가
지 明確하게 말할수 있
는것을 말해보고자한다.
우리총회는 一九四五年
十月三十日 오후두시 大
阪東成敎會에서 在日本朝
鮮基督敎聯合會創立準備委
員會의 開催에 그 요람
을 들수 있다. 홀라가 있
어저 가는 先輩들의 이
를 列挙해보면 그대동
창起準備委員은 다음과같
다.
東成敎會(윤용도・강경
옥・백남철) 西成敎會(이
영준・김정삼) 堺敎會(이
봉조・최하모) 南方敎會(김
기삼・김상원) 池田敎會(김
川西(방성원)・박석만・김
영자) 京都(西宮)敎會(김
재술・이도상・유석준) 名
古屋(瀬戸)敎會(박명준・
손병태・신백성) 兒玉敎會
(김명현) 岡崎敎會(이유
학・김용선) 豊崎敎會(김
창식) 横濱敎會(이정애)
이렇게 12敎會24명이함
께 모여 이때까지 그들
이 소속했던 日本 敎會
(團)에서 나와 우리의
연합체를 이루하기에 이
른것이다.
그해 11월15일 同準備
委員會는 正式으로 창립
總회를 京都敎會에서 열고
었다. 이러한 기록교해분
임원들을 定하기에는 이른
목사 부회장 金원식장로
총무에 박명준목사 서기
유석준장로 회계 金재술
장로 전도부장 김정준교
육부장 강경옥 관리부장
김원식(그러나 회장은 수
개월후 韓國으로 가게되
고 부회장이 代行하다가
다음 총회부터 오윤태목
사가 심수년을 회장직을
맡아 오게된다.)
창립총회이후 흘러간 28
년의 세월속에 여러사람
들 도왔고 총회의 규모도물
라지않게 달라졌을것이다.
해방후 韓國은 "기독
교 자유전지"를 만나,
구미의 수많은 교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와 兩
先驅"로서의 표본이 된
것이다.

李總務退任은 우리 총회의 한 里程碑

먼저, 흘러간 總會史
를 記述하게 된다면 물
론 지금까지 이 총회를 물
론 이끌어온 先進들의 파나
는 노력과 눈물의 자욱
이 나타나고 後進들에게
도 부끄럽지는 "민중의
先驅"로서의 표본이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처
지의 役割과 同時에 처
하는 總會內組織에 있
는 敎役者의 海外研修부
를 세우기까지, 在任中
은 母國其他등지에서 研
究하고 돌아와 우리總會
의 中軸의 役割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는 불
론 우리總會와 오랜 關
係를 맺어오고있는 카나
다敎會나 祖國敎會의 友
好的인 聲援으로 이루어
지는것이기도 하지만 實
務的인 問題는 恒常 여
러가지 難點이 있음은두
말할것없다.
近年에 이룩한 大阪韓
國基督敎會館(KCC)의
財政的인 問題와 海外에
의 紹介에 있어서도 하나
님의 크신 도움과 李總
務의 꾸준한 役割은 말
할 필요가 없는줄 안다.
李總務의 在任期間中의
業績을 일일이 列挙한다
면 그것은 오히려 그의
숨은 奉仕에 대해 愚筆
의 拙를 일하게 될런지
모르기에 생략하기로 하
자.
이제 그가 이룩한 總
務的인 튼튼한 기틀위에
錦上添花의 役割을 다할
崔京植新總務의 力量에
대를 걸면서 좀더 아쉬
운 점을 말한다면 우리
總會의 自立의 土臺를 마
련키위한 第一次의 단계로
서 KCC의 自立運營基
金까지 마련하는 일에서
어 비록 總務職은 물러
나더라도 계속적인 努力
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것
은 역시 총회원 전체의
뜻이 아닐까도 싶다.
우리는 오늘 第29回總
會를 마친한 이時점에서
고난으로 始作한 우리의
歷史를 회고하면서, 그어
마음 한뜻으로 連年하여
나온 우리의 발자취에보
람을 느끼면서, 14年間總
務職의 어려움과 勞苦를
고한 李總務退任의 現時
에서의 跳躍의 한里程碑가
될것을 생각하며 在日大
韓基督敎會總會와 傘下各
敎會에 하나님의 크신 祝
福이 영원하기를 믿고바
라는것이다.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short, dark hair, wearing thick-rimmed glasses, a dark suit jacket, a white shirt, and a patterned tie. He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slight smile.

序
지나간 14년을回顧하며

총회의 神學의 作業의 실마리는 一九六八年度
宣敎60周年을 준비하는 過程과 今年度총회에
上程된 宣敎基本政策草案에서 찾을수 있다. 過去
一年間의 活動 가운데서 表面에 보이지 않았지
하는 宣敎基本政策草案作成委員會가 原案을 준
비할수 있었음은 가장 重要한 前進으로 본다.
過去의 歷史를 反省하고 福音의 原點에 돌아
가려는 悔改를 全總會의 것으로 하며 總會의
神學의 路綫、基本課題를 뚜렷이 나타내고 장래
의 宣敎姿勢를 밝히려고 한것은 오늘 총회에
서 의이에 대한 活潑한 論議와 아울러 特記할
바로 생각한다。

教會의 基本使命은 主의 福音을 宣布하는데 있다. 今年度活動 가운데 前進이라 할수 있는 것은 오랜 沈滯을 깨뜨리고 關西地方(특히 大 阪 京都教會를 中心으로)과 中部地方諸教會의 特別道를 通한 試圖였다. 韓景職牧師를 비롯

한 母에서 온 諸講師의 協助로 逐戸伝道와
올려 큰成果를 거두고 다른 地方에도 작업을
주었다. 直接伝道와는 關係 없으나 伝道局 테
두리에서 連合하고 있는 女伝道會는 子女들에
게 對한 責任을 느끼는 가운데 젊은 어머니
의 信仰과 民族의 自覺을 추구하는 文化活動에
뛰어난 움직임이 보였다. 各地方婦人 수양회와
『고개』라는 文集發刊이 소개되어야 하겠다.

教育居活動 가운데 牧師・長老의 連合研修會가 있었다. 池明觀教授(長老)를 講師로 하여 敎會指導者再敎育面에 成果를 거두었다고 본다. 青年會議는 종래의 이모임이 敎會의 支配로서가 아니라 今年에는 青年들이 敎會의 地位로서가 된 責任을 묻고 特別히 主日學校敎育 등에 自己네들이 主張한 그리스도인의 「民族自己同一性」의 確立을 몸소 이루어갈 責任을 확인하여 건설하여 實踐적인 方向을 모색한 일은 새로운 評價를 받게 될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런 젊은 敎人들의 方向을 여러 面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社會活動 가운데는 日本政府의 出入法案이 根本적인 修正이 없이 네번째 國會에 上程되었기에 別紙와 같은 反對聲明을 發表했다.

우리 總회의 伝道師로 西新井教會를 設立하
는데 공헌이 있었던 朴炯圭牧師가 세로된 事
件으로 우리는 朴大統領에게 그를 釈放하되價
仰의 自由保障을 위한 嘆願書(別紙)를 보냈
다. 그것은 그의 行動이 信仰과 良心의 自由
에 屬한것으로 母國教會가 판단한것을 우리도
共有하기때문이었다. 韓日兩國家에서 各기 別個
로 일어난 이런 事件으로 國家와 信仰의 間
題를 다시 생각케 해주었다.

今年9月1일은 關東大震災1朝鮮人虐殺50周年으로 日本NCC在日外国人人權委員會와 「朴君을囲む會」共同主催의 特別集會(9・2集會)에 參加하는것으로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에서 아 직도 差別이 현저한 日本社會를 다시 생각하 며 在日韓國人으로서의 民族主体意識을 밝히려 했다。

교役者移動 가운데 李宗憲牧師가 解放後 처음으로 隱退牧師로 나선것이 감개무량하다. 오랜 牧會의 달음박질을 마치고 視牧牧師로서의 責任은 벗었으나 福音証提의 職務를 벗은것이 아

님은 본인의 自覺과 아울러 分明하다. 總會가
『주고하성읍니다』고 慰勞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안다. 이런 경우에 은퇴하는 敎役者를 돕는
制度가 오래전에 준비되지 못하여 유감이었으
나 財政局의 提案으로 李宗憲牧師를 첫번케스
로 敎役者厚生年金制度(敎役者사래금 3%를 敎
會와 本人이 切半負擔)가 今年5월에 確立되

었다. 問題는 앞으로 實施하는 受苦를 全總會의 努力으로 해야 되겠다.

今年度에 總會的으로 손실을 느끼게 됨은 故 朴南在 崔聖八 兩長老의 別世였다. 解放後 오늘날까지 우리 總會가 形成되어오는 過程속에서 두 長老님의 말없는 숨은 공헌이 컸다고 보며 遺家族위에 하나님의 慰勞하심을 비는 바이다.

일군이 줄여져가는 한편 指導陣營에 새 일군이 증가되는 기쁨도 보고해야 하겠다. 母國敎會가 파송한 宣教師들(後述) 우리가 기른 姜榮一 전도사가 강도사試驗을 받았고 새로운 長老 5名(金連伯, 尹官炳, 徐又春, 安秉鉉, 朴善鉉)이 按手받고 將立되었다.

지난 1年間 우리總會가 가진 에큐메니칼關係는 가장 多彩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새發展은 日北美宣敎協力委員會(J.N.A.C.)에 準會員으로 加入하여 北美諸敎派(6)와 姊妹結緣을 맺게된 일이다. 우리가 캐나다長老敎會와 宣敎

關係를 맺기 전에 가졌던 미국教会와의 유대關係를 회복한 것이다. 우리의 意圖한바는 北미의 諸教會와의 國際的連帶를 通하여 特別히 社會에서抑壓받고 있는 民族의 人權을 위하여 서로 이바지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 來年 5月 우리 總會主催와 J N A C, N C C, C C A, W C C C 後援으로 國際會議「社會의 小數者問題와 宣敎戰略」을 京都關西아카데미하우스와 K C C 職員 社會局員, 婦人代表等 7名(團長金錫潛, 洪東根, 金信煥, 崔京植, 崔昌華, 李清一, 權仁淑)이 미국과 캐나다諸教會, 特別히 社會小數者の 實情, 住民組織運動을 視察하고 教會間의 유대를 돕기 위하여 앞으로의 共同使命을 나누는 일에 큰 成果를 거두었다.

E A C C 가 第五回總會를 싱가포르에서 開催한
에 있어서 憲章을 改正, C C A (東아세아 基督
敎協會)로 改称하게 되었다. 改稱명을 갖는

어 가난과 抑圧 속에 있는 百姓과 함께 하는 敎
會의 자체를 밝혔다. 崔京植總務補佐가 總會代
表로 이에 參席하고 本職은 顧問으로 초청받고
同時에 正義와 奉仕委員會委員으로 選出되었다
에유메니칼運動은 參加하고 무엇인가 공헌하는
데 의미가 있다. 過去 우리는 海外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왔다. W.C.C가 一九七〇년
來로 特別基金一〇〇萬弗을 설치 人種民族差別
에 解放되는 運動에 補助해왔다. 昨年각교회
리스마스 獻金가운데서 우리總會가 二〇萬圓은
이運動을위하여 보냈는데 이것은 差別받는 民
族가운데서 보낸 제일 큰 獻金으로서 世界敎會
의 갈채를 받았다.

母國教會와의 關係도 깊어가고 있다. 今年에
새일군으로 李柄球, 洪東謙兩牧師와 鄭榮嬉, 朴
貞子, 宋敬信 道師가 우리隊列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앞날의 關係를 굳게 잡기 위하여는 人
選 財政協助問題로 母國教會와의 宣敎協力實踐
을 위하여 相互關係를 再檢討할 때가 온것같

다. 國際社會가 中國本土政府를 承認해가는
를속에서 孤立化되어가는 台灣長老教會와 그 教友와
가 오늘의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志向하는 自
由의 姿勢를 크게 評價하며 우리教會와의 友
好關係를 人的交流・出版物交換을 맺는것도
미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캐나다教會와의 傳統的인 關係는 一步一步前進
했다. 在日宣教師委員會會計를 廢하고 우리總會
會計에 完全히 統一되고 H Y N D M A N 宣教師
가 우리 事務職員兼 總會會計實務担当의 任사
함으로써 그 機能도 統合했다. 解放後미총회 기
능統合 그리고 財政統合까지 우리總회의 自主
性이 完全히 確立된셈이다.

總會文書信道와 公報活動을위한 기관지『福音
新聞』은 작년까지 關西에서 丁仁壽, 金元治, 羅會男
洪東根, 李昌雨, 尹宗銀, 田永福諸牧師와 羅會男
曹斗錦氏들의 協助로 發刊했었는데 今年正月號
부터 發行處를 總務室에 옮기고 楊炯春牧師를
編集人으로 새로운 體制를 갖추어 前進하고있
다.

새
任
員
들
뽑
혀

새
임
원
들

九월중하순에 열렸던 각
지방회는 다음과같이
任

④女長老·女牧師

船橋 1 東京 2

副會長	金漢弼	吳允台
會 長	金君植	
副書記	李海春	
書 記	朴憲燮	
副會長	金炳淇	

(9月号掲載重複)

書記	金桂昊	孟哲輝
會計	權泰岳	李永欽
會計	金光洙	
副會計	金再竜	

① 총회를 二年에 한번
모이는 것이 좋다 (경제적
문제).

②教會新築에 대한 補助
要請의件 (橫浜).

③長老増員請願 (川崎 2)

△閔西地方

會長 金德成
副會長 尹宗銀 俞錫
書記 李昌雨
副書記 金信煥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1406の3
電話 (052) 771-5952

伝道部長	金元治	△西南地方	會長	崔昌華
教育部長	尹宗銀	副會長	韓在秀	李生族
青年部長	崔忠植	書記	金得三	
婦女部長	丁仁寿	副書記	裴基秀	
社會部長	李成基	伝道部長	대비	
視察部	田永福	教育部長	金榮植	
試取	洪永其	社會部長	崔永模	
《重要献議案》		財政部長	安秉鉉	
①總會機構改編（婦女局 青年局復活）		〃〃次長	文鳳錫	
②宣教基本政策에 教会 學校（教材・社舍用語）의		《重要献議案》		
統一性指導의 必要性。		①카나다宣教師 一名을 西南地方에 派送要請。		

『九・二集会』報告(続)

小杉 勉 次

(前号から)
それはあの五〇年前の虐殺
事件の主役は一体だれ
であったのか、を考へてみ
ればよい。確かに支配層、
国家権力の側が、意識的に
「流言飛語」を流し、一部
社会主義者の弾圧を併せて
「不逞鮮人」撲滅を企てた
のは事実である。しかし、
官憲側のそうした世論操作
に便乗して(ある資料では
むしろ官憲のなまぬるさを
つきあげて)朝鮮人虐殺
と暴行に手を加えていった
「まじめな大衆」の存在
を忘れてはならない。町
角や通りで毎日「今日は良
い天気だ」と挨拶を交わ
しあう善良な市民。まさ
にその市民があの事件の主
役の一端を担っているとい
うことだ。

(3)

個としての人間は、その
背後にあって彼を否定なく
規定する社会的総関係の中
に生きている。そこでは個
の力を痛感させられる。現
在の人間関係の絶望と悪魔
性を感じてはならない。ま
る単なる個人のヒューマニ
ズムに落ち込む生であって
はならない。

だが、そうした現実の優
越性を百パーセント認めた
上で、なお私は人間社会を
構成する最小単位が「個」
としてのわれわれ自身であ
るという平凡な真理に執着
したいのである。「個」とし
ての人間、換言すれば「代
表」可能なかけがえのない
「人格」を全世界の何物に
もまさって尊ぶ、こうし
た生のあり方に「民族
解放」も「民族的主体の確
立」も、そして「差別撤
廃闘争」も真の實りをもた
らしえないと思うのだ。

(4)

日本人にとつての「吉野
に示されるような」生の姿
勢は、同時に「在日朝鮮韓
国人」においても、それ
が唯一ではないにしても、
有効な射程距離を持つので
はないかと思う。つまり、
「日本人一般」を問題にし
ての歴史、真の意味での歴
史変革は不可能であるとい
うことである。日本人一般
ではなく、個としての日本

人」に、個としての朝鮮韓
国」人」が出会うこと、火
花を散らしあうことを契機
に、眼前の歴史の現実を
格す突破口が切り開かれ
ていくのだと思う。そして
同時に、「個」としての他者
に目覚めるということは、
今ある自分の生が究極的に
「意味ある生」として肯定さ
れる場(それは主なる神に
よる場以外にはあるまい)
を発見することであり、歴
史哲学的にいえば、また
ま運命のたわむれとしてこ
の世・この状況の中に生を
得たにすぎぬと主張する「運
命論」あるいは自分の人生
は偶然性の所産でしかない
とする「宿命論」を突き破
つて、まさにこの時代・その
問題性のまっただ中で生き
続けることこそが、己の生
の真の姿(それは現状肯定
の人生をも逆破破壊して
いく爆発的生の燃焼を秘め
ている)を発見していく道
程であるとする「摂理」論
の展開である。あるいは又
「個」としての人間が、歴史
にどれほど責任を負い切れ
るかとの問題でもある。す
べきであるとする「義務論」
や「当為論」からではなく
(なぜなら、人間は義務や当
為では究極的に生きられな
い、自らが「意志的」に、
歴史に責任を負って生きて
いくこととする、その源泉、
エネルギーはどこからえら
れるのか、という問題であ
る。信仰に基づく生とは、
まさにこの点に關係してく
る。

オモの焦点

第二九回年次総会が開
催される。代議員として
出席した経験のない筆者
には、今年も又無難な人
事といくつかの案件処理
に終始する総会になるの
では、との印象を深く持
たせられる。「議案制民主
主義」に至るところで暗

倫理と論理の確立を

正義の貫徹に立脚する人
間解放運動において、「福
音に基盤を置く」総会」
の解放運動がいわゆる、
「在日朝鮮韓国」人解放
運動」の歴史と流れの中
で、いかにその位置と発
展を求め(論理の形成、祝
福のひとときとならんこ
とを)。

「総会」がキリストの福

音に依拠した共同体であ
ることは、その共同体を根
底から支える「倫理」は
何かを問われることであ
り、しかし、この「総
会」が朝鮮韓民族に帰
属性を持つ群れとして今
ある事実、他の「既存
諸団体」(前記「方策」の表
現)との間にいかなる対
話の言葉、つまり「論理」
を保持しているかを問う
ことでもある。キリスト
の福音は個人をして主な
る神の前に単独者として
立たしめる(信仰告白)
と同時に、その彼をして
他者との交わりを赴かし
める力を持つ。

今年、総会が真の意味
におき神の前にある自分
をみつめる(倫理の確立
と共に、他者と共にある生
を求め(論理の形成、祝
福のひとときとならんこ
とを)。

民族の進む道(3)

韓 哲 河

毎日毎時彼ら労働者は機
械の奴隷として、監督者に
監視され、あるいは個々の
生産業者によって酷使され
ていくのである。労働者階
級には年齢の差、性別の違
いは問題とされない。ただ
労働のための道具としてそ
の利用価値に従って価格が
決定されるのみである。
彼らに対する搾取は生産
の過程にとどまらない。現
金を受けとるその瞬間から
各種の有産階級によって新
たに搾取を受けるようにな
る。マルクスは、プロレタ
リアートには家庭もないの
だと言った。なぜならば資
本主義体制下では、家庭も
私有財産に基づいてのみ獲
得されるものだからである。
そして無産労働者はブル
ジョアが所有するの
と同じような家庭を持つこ
とはできない。つまりここ
においてマルクスが指摘す
るのは、資本主義体制下に
あつては、一言でいって人
間が人間としての役割を果
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
とである。

マルクス主義によれば、
実はブルジョアも、彼
らの私有する財産のゆえに
非人間化を免れることが不
可能となる。というのは、
人間が私有財産に依存する
ことによって自己がないう
る生産活動を放棄する時、
ブルジョアは実際には
歴史の進展から疎外されて
しまうからである。彼らが
私有財産に依存しているか
ぎり、彼らは真に己の資本
質に対する意識を持つこと
ができず、従って自分自身
に立ちかえることはできな
くなる。かくして私有財産
は、プロレタリアートのみ
ならずブルジョアにまで
を非人間化する根本問題
となるのである。

(2頁につづく)

パウロにおける神の国 キリストの王支配(2)

横浜教会牧師 金 君 植



将来に対する期待と現在
性の間に緊張関係が生れる。
問題は、この緊張関係がど
れだけなぐもちたえつ
づけるか、ということであ
る。この緊張が一方的に極
端な熱狂的な未来期待に解
消されるか、或はヨハネ福
音書の場合におけるように
救いの徹底的な現在化に解
消されているかを、既に原
始キリスト教の宣教におい
てみることが出来る。私を
信ずるものは、たとえ死ん
でも生きる。生きて、私を
信ずるものは、決して死ぬ
ことはないであろう(ヨハ
ネ11:25-26)。
パウロ自身の場合には、
この現在と未来の緊張関係
は、はっきりと維持されて
いる。キリストの王支配は
彼にとつて、その現実存在
者としての、キリストに従
う者としての、キリストに
おいて個々の人間に語り
かけてくれる一つの要求で
ある。各個人は、もろもろ
の権力集団の犯せるあやま
ちの中で、がんじがらめに

され、奴隷化されている。
個々の人間のおかすあやま
ちも社会の事情や条件と決
して無関係のものではない
から、キリストの力は先ず
個々の人間を集団の支配拘
束から解放する力として働
く。各個人はこのことを通
して自己を個別的被造物と認
識する。いかにいえば、信
仰による罪人の義認は専ら
個人的人間を問題にする。
義と認められた罪人は、個
人的人間として存在するの
であつて、社会集団ではない。
彼は最早や自己が存在から
規定するのではない。彼は
キリストにあるが故に、新
しい被造物である。キリス
トの王支配の福音は、個々
の人間に語られているので
あり、神の御前における個
人的人間が問題であることを
明らかにする。このひとり
のもののために、キリスト
は死にわたされ、よみがえ
られたのである。
個々の人間が如何にキリス
トの王支配に出会うかに
よつて、この古き世界の真
只中で、世界のはてまで
におよぶキリストの支配が
うたてられる。このことは
具体的には、この世界の変
革を意味する。しかしこの
革命的出来事は、Xという
ある不定の時日におけるの
ではなく、個人がキリスト
の王支配に服従するところ
では、今既に始まつてい
るのであり、おこりつつあ
る。未来は既に始まつて
いるのである。この事実を
認識することは、終末列車
の時刻表作成に没頭するよ
りはるかに重要なことであ
る。今が救いの時なのであ
る(コリント第一6:2)。
結論としていえることは、
神の国はキリストの王支配
である。この支配は本来
的には、なるほど彼岸的
ではあるが、キリストに従
う者の群として、現在、実
現しつつあるのである。こ
の支配は、現在既に現実で
あるが故に、未来をもつ

